

[書評]

李康彦 著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

〈I〉

李康彦 교수의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형설출판사)는 우리 소설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것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李교수의 관심은 일찍부터 한국소설의 체계화에 있었고, 이를 위하여 한국소설의 흐름을 규명하려는 작업으로 집중되었다. 그러한 노력은 그의 첫번째 저서인 『한국 근대소설 논고』(형설출판사, 1983)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는 우리의 소설을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을 통하여 조명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소설에서 보이는 지속과 변화라는 양면을 동시에 포괄하면서 중국에는 우리 소설의 史的 체계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李교수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어느만큼 성취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교수가 강조하는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이라는 이분법은 우리 소설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단순화시킬 위험성 또한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한국소설의 흐름을 규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李교수의 후속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에 대한 해답이 이번에 간행된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형설출판사, 1992)라 할 수 있다.

〈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는 그의 『한국 근대소설 논고』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먼저 『한국 근대소설 논고』가 1920년대 소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번의 저서는 193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된 **李교수**의 저서는 이전의 저서와 함께 그가 주장하고 있는 한국 소설의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예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별개의 저서로 이해하는 경우,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는 1930년대에 대두한 『한국 모더니즘소설 연구』라 이름할 수 있을만큼 모더니즘소설에 대한 집중적 연구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는 8편의 개별적인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도 있다. 그 하나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으로 「김동인소설과 내면심리의 표출양상」, 「염상섭소설의 도시성 연구」,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형성과 그 배경」, 마지막으로 **李교수**의 학위논문인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소설 연구」 등 4편이며, 다른 하나는 1930년대 작가 및 작품론으로 짜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성립을 가능케 한 ‘내면의식의 세계’와 ‘도시성’이라는 문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소설적 형상화를 거쳐 1930년대 우리 소설사에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교수**는 1930년대 한국 소설의 특성을 모더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1920년대에 지속 세력이었던 아이디얼리즘과 변화 세력이었던 리얼리즘이 함께 지속 세력으로 변모하고, 새로운 변화 세력으로 모더니즘이 등장한다’고 하여 아이디얼리즘 → 리얼리즘 → 모더니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각각의 논의들을 개별적인 자리에서 이해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되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있는 경우 아이디얼리즘, 리얼리즘, 모더니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보되지 못하여 철학적인 측면과 문학

사조적 개념 사이를 넘나드는 듯한 인상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별적인 자리에서, 특히 1930년대의 소설과 모더니즘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은 괄목할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30년대의 개별적인 작가나 작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논외로 하고, 모더니즘 소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저자의 관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김동인 소설과 내면 심리의 표출양상」에서 저자는 김동인의 초기소설 〈약한 자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자여〉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심리표출은 1930년대의 심리소설, 특히 李箱 소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1930년대 모더니즘소설의 성립에 대한 前史를 해명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김동인의 초기소설에서 보이던 심리세계의 표출이 어떠한 소설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이후의 그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와 함께 한국 초기 낭만주의적 작품, 이를테면 나도향의 초기 작품에서 보이는 환상적이고 感傷的인 내면세계의 표출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염상섭소설의 도시성 연구」 역시 모더니즘 소설 연구의 일환으로 1920년대 염상섭의 작품, 이를테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비롯하여 〈밥〉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나타나는 도시적 양태를 집중적으로 추출하여 거기에서 도시 병리적 현상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이들 작품을 굳이 모더니즘소설의 전단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러한 요소는 1930년대 도시소설의 前史的 요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병리적 현상이 리얼리즘소설의 특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1930년대 모더니즘의 성립과정에 집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따라서 1930년대 성립된 모더니즘 소설은 단순히 서구문학의 영향으로 1930년대에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20년대 김동인 소설에 나타나는 ‘심리적 요소’와 염상섭 소설에 보이는 ‘도시성’ 등과 같은 요인이 1930년대에 이르러 서구문학의 영향과 결합하여 모더니즘 소설을 형성시켜 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위의 2편은 모더니즘소설의 前史的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李교수는 1930년대 우리 소설의 특성을 모더니즘으로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형성과 그 배경」과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소설 연구」로 집약되어 있다. 사실 ‘모더니즘소설’이란 명칭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그다지 쓰이지 않았다.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지주의’와 ‘이미지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대시의 한 경향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소설의 경우에는 ‘심리주의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왜 ‘모더니즘의 시’는 현대시의 특징으로 논의하면서 ‘모더니즘소설’이란 명칭은 쓰여지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없었던 필자는 막연히 소설이란 본질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대 도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설은 광의의 모더니즘소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詩는 자연과의 친화를 본질적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로 바뀌면서 감성적 세계에서 지성적인 세계로, 자연성에서 도시성으로 제재와 방법을 전환함으로써 이전의 시와는 달리 ‘모더니티’를 지니게 되고 여기에서 ‘모더니즘의 시’가 성립한 것쯤으로 생각해 왔다. 따라서 자연에 바탕을 둔 서정시에서 지성과 현대문명에 바탕을 둔 모더니즘의 시로 변모는 소설의 경우 도시문명에 바탕을 둔 소설이 시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연(농촌)으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일찍부터 농촌소설(peasant novel)을 형성한 것과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李교수는 모더니즘소설의 성립을 아이더얼리즘에서 리얼리즘으로 변모한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리얼리즘에 대한 반성과 현대문명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현대인의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비판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새로운 경향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그 결과 모더니즘소설은 크게 심리소설과

도시소설로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소설의 전개과정과 특질을 李箱을 비롯한 심리소설과 박태원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소설로 나누어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李교수는 결론적으로 심리소설과 도시소설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차이를 전자가 구심지향적, 개인의식의 심화, 내면심리의 성찰, 불안의식, 자기 풍자, 해사적 문장으로, 후자는 원심지향적, 사회의식의 확대, 외부세계의 관찰, 소외 의식, 사회 풍자의 방법, 통사적 문장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더니즘소설이 갖는 의의를 '1930년대 이 땅에 등장한 심리소설과 도시소설은 모더니즘이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고, 1930년대 문학사적 공간의 심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Ⅲ〉

이상으로 李康彦 교수의 저서 『한국 현대소설의 전개』를 일별해 보았거니와 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논문을 간략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李교수가 우리 소설을 작품의 개별성 보다는 변화와 지속이라는 전체적 흐름 위에서 파악하고 史的 체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반적으로 관심있는 작가, 작품에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문학사의 변방에 자리하는 작가를 발굴하여 새로운 평가를 하는가 하면, 비평사적인 측면으로 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자의 예가 「백신애의 삶과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절충주의 문학론의 형성과 전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李교수의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심화는 한국 근대문학 연구의 또다른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쉼을 붙인다면 기존연구에 대한 보다 비판적 수용이 李교수의 관점을 보다 뚜렷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설출판사, 1992. 333면 [조진기]